

월간
殉國

순국

2025
6

통권 제413호 www.soongook.org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SPECIAL THEME

광복 제80주년 기념 특집

‘의병과 의병정신의 재조명’

순국 특별 초대석

카를로스 페나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아름다운 사람들

이달의 순국선열 | 나창헌 선생·윤세주 열사

6월의 독립운동 | 6·10만세운동

역사의 시선으로 구국 의병항쟁 열전⑬ - 이석용 의병장

길 따라 일 따라 서울, 독립운동과 역사의 현장을 가다②②
- 구로구의 근현대사 역사 현장 -



우수콘텐츠잡지
2025

고하 송진우 선생 탄생 135주년 추모식

2025년 5월 8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고하 송진우 선생(1890~1945) 탄생 135주년 및 서거 80주기 추모식이 5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김창식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날 헌병철 사업회 이사가 대독한 추모사에서 “고하 선생은 국민의 곁을 지키며 일제에 맞선 독립투사였다”며 “해방정국



에선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분”이라고 말했다. 고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중앙학교 교장을 지내며 국내외 지도자와 제휴해 3·1운동을 계획했고, 동아일보 3·6·8대 사장을 지냈다. 광복 뒤엔 국민대회준비위원장,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 활동했다.

김창식 전 국무총리는 “고하 선생 등 애국선열의 헌신과 노력 덕에 독립한 이 나라는 80년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다.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도 염정림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선생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은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민족대표 33인 이승훈 선생과 김병조 목사, 유관순 열사, 조소앙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